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8

▶ 59회 예고
수시마는 탁실라에서 일어난 소요 때문에 귀국명령을 받고도 떠나지 못한다. 특사가 나서서 메뚜기떼 습격으로 농사를 망친 농민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약속한다. 소요가 사라지자, 수시마는 호위를 받으며 탁실라를 떠난다.



탁실라, 뜻밖에 소요가 일어나다

탁실라에 도착한 빠딸리뿌뜨라 왕궁 친위대 조장은 칼라따까 수상의 지시대로 특사를 먼저 만났다. 특사는 원래 수시마 부왕이 특별휴가를 받아 빠딸리뿌뜨라에 와 있을 때 대리통치를 위해서 부임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남아서 활동하고 있었다. 특사의 임무는 수시마 부왕을 보좌하면서 통치를 자문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특사나 친위대 조장 모두 칼라따까 수상의 심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친위대 조장은 빈두사라왕의 건강 소식부터 전했다.

"대왕님께서는 매우 위중하십니다. 갑자기 어떤 상황을 맞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왕님께서는 여전히 수시마 부왕님을 총애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대왕님의 명령서를 수시마 부왕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특사는 명령서의 내용을 보지 않고서도 예견했다.

"귀국명령서겠지요."

"예, 대왕님께서는 수시마 부왕님을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부왕님께 왕위를 물려주고 싶으신 것이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마우리아왕국의 흥망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오."

"특사님, 그렇다면 대왕님의 명령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대왕님 명령서이니 달리 방법은 없소."

"명령서를 꺼내 불살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사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손사래를 쳤다.

"대왕님 명을 이행치 않는 것은 왕명거역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중죄지요. 그대는 대왕님을 지근거리에서 호위해온 친위대 조장이오. 그러니 그럴 수는 없소."

친위대 조장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자 특사가 말했다.

"대왕님 명을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있소."

"특사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해낸 비책은 아니오. 칼라따까 수상님께서 나에게 알려준 것이오."

친위대 조장이 고개를 숙였다. 칼라따까를 믿고 탁실라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특사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서였다.

"나는 그동안 수시마 부왕님의 통치에 불만을 가진 토착 성민들에게 다가가 달래는 일을 해왔소. 그것도 부왕님을 돕는 일이었소. 이제 그들은 내 편이 되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소."

특사가 토기사발에 짜이를 따라 친위대 조장에게 권했다. 짜이는 염소젖에 사탕수수 즙을 탄 피로회복제나 다름없었다. 친위대 조장은 짜이를 단번에 마셨다. 특사가 웃으며 말했다.

"빠딸리뿌뜨라에서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오."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말을 잘 타는 기병들을 차출해 왔습니다."

"군사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시오. 다시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야 하니까."

"특사님께서 회유한 성민들을 어떻게 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농사짓는 성민들인데 그들을 동원할 것이오. 작년 메뚜기떼 습격으로 밀과 옥수수농사를 망쳤는데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하니 불만이 많소. 소요가 일어나면 수시마 부왕님은 탁실라를 떠나지 못할 것이오. 소요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빠딸리뿌뜨라로 출발하겠소?"

친위대 조장은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마우리아왕국을 위해서 빠딸리뿌뜨라에서의 호의 호식을 버린 채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특사가 달리 보였다.

"놀랄 것은 없소.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칼라따까 수상님의 비책이오."

"아, 저에게도 칼라따까 수상님께서 내린 지시가 있습니다."

"무엇이오?"

"꾸날라 왕세자님을 모시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오. 부왕님께서도 꾸날라 왕세자님을 빠딸리뿌뜨라로 보내고 싶어 하시니까. 내가 보기에 꾸날라 왕세자님이 향수병에 걸린 것 같소. 밤이 되면 두견새처럼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성 안을 돌아다닌다고 하오. 부왕님도 조카가 그러하니 마음이 아프지 않겠소?"

친위대 조장이 방법을 찾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특사님, 수시마 부왕님께서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실 때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그러나 그 시기는 알 수 없소. 소요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성민들을 언제 만나실 것입니까?"

"그대가 수시마 부왕님께 귀국명령서를 전달하는 그 시각이오. 준비는 다 되어 있소."

"예, 알겠습니다."

탁실라는 빠딸리뿌뜨라처럼 내성과 외성이 따로 없었다. 왕궁은 작았고 왕궁 주변에는 성민들의 크고 작은 벽돌집과 진흙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특사가 거주하고 있는 관사도 크지는 않았다. 정원이 단정하게 가꾸어져 있었고, 담은 관사가 훤히 보일 만큼 낮았다. 정문에는 군사 두 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친위대 조장은 보초 한 명을 따라서 탁실라 왕궁으로 들어갔고, 특사는 상인들이 사는 거리로 내려갔다. 상인들 중에는 무역으로 부호가 되어 용병과 사병을 둔 사람도 있었다. 빠딸리뿌뜨라나 바라나시 같은 먼 도시로 무역하러 떠날 때는 호위군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친위대 조장은 왕궁 정문에 이어 부왕접견실 문 앞에서도 간단한 검문을 받았다. 그러나 빈두사라왕 이름으로 된 통행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거칠 것이 없었다. 부왕접견실은 초라했다. 가구들은 낡았고 화병에 꽂힌 꽃들은 시들어 있었다. 그런 탓인지 활기는커녕 침울한 공기가 감돌았다. 친위대 조장은 창 옆에 서서 수시마 부왕을 기다렸다.

그러나 수시마 부왕은 바로 오지 않았다. 대신 소년이 나타났다. 친위대 조장은 왕족만 입는 남색비단 도티를 보면서 꾸날라라고 짐작했다. 소년이 말했다.

"빠딸리뿌뜨라에서 오셨지요?"

"예, 대왕님 명을 받고 부왕님을 뵈러 왔소."

"백부님께서 말씀했어요."

"아, 꾸날라 왕세자님이시군요. 부왕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경비대장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오늘은 승마하는 날이거든요."

"승마는 얼마나 하십니까?"



"길게 하실 때도 있고 짧게 하실 때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대왕님 명을 전달해야 하는데..."

꾸날라가 갑자기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갈 때 나를 데려다주세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왕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친위대 조장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아쇼까 부왕이 아들 꾸날라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할지 상상이 되어서였다. 특사의 말대로 꾸날라가 향수병에 걸려 있다면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자신도 탁실라에 오는 동안 내내 아내와 꾸날라 또래의 아들이 그리워지곤 했던 것이다. 친위대 조장이 호의적으로 대답해주자 꾸날라가 기뻐하면서 부왕접견실을 나갔다.

"백부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볼게요!"

친위대 조장은 긴장을 풀었다. 수시마 부왕을 바로 만나지 않았으므로 여유가 생겼다. 수시마 부왕을 만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늦어졌기 때문이었다. 지금쯤 특사는 성민들을 만나고 있을 터였다.

이윽고 수시마 부왕이 경비대장과 함께 접견실에 나타났다. 친위대 조장은 무릎을 꿇고 보고했다.

"위대한 마우리아왕국 대왕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빠딸리뿌뜨라 왕궁 친위대 조장이옵니다."

"먼 거리를 오느라 수고가 많았소. 대왕님의 명령서를 보여주시오."

친위대 조장이 품속에서 빈두사라왕의 도장이 찍힌 명령서를 내밀어 올렸다. 명령서에는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오라는 것과 특사에게 탁실라 통치를 위임하라는 것, 두 가지가 적혀 있었다. 수시마 부왕은 믿어지지 않는 듯 두 번을 읽고서는 소리쳤다.

"아! 이제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 대왕님을 뵙게 됐소. 희소식을 가지고 온 그대에게 무슨 말로 치하할지 모르겠소."

"부왕님이시여, 저는 대왕님 명을 받고 온 것뿐입니다. 대왕님 명대로 했으니 부왕님을 모시고 무사히 돌아갈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 것 없소.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것이오. 특사가 있으니 이곳을 맡기고 떠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오."

수시마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향수병에 걸린 사람은 꾸날라가 아니라 수시마 부왕 같았다. 수시마의 신임을 받아왔던 탁실라 출신 경비대장은 빈두사라왕의 명령이므로 아무 말도 못했다. 친위대 조장이 말했다.

"제 생각입니다만 꾸날라 왕세자님도 함께 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당연하지요. 조카도 데리고 가겠소."

그런데 그때 왕궁 밖 멀리서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고함소리뿐만 아니라 북소리까지 둥둥둥 울려왔다. 수시마 부왕은 탁실라에서 두 번이나 반란을 겪었던 기억이 선명했으므로 놀란 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요?"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빨리 알려주시오."

경비대장이 나가려는 순간 특사가 달려들어 왔다. 수시마 부왕이 특사에게 다가가 물었다.

"성민들이 왜 소리치고 있소?"

"소요입니다. 누군가가 성민들을 선동한 것 같습니다."

경비대장은 다시 접견실로 들어와 앉았다. 수시마는 특사와 경비대장에게 대책을 물었다.

"어찌했으면 좋겠소?"

"수괴가 일으킨 반란이 아니라면 성민 유지와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비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특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무력진압보다는 대화로 수습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수시마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평정심을 잃어가는 듯 시선을 한 곳에 두지 않고 두리번거렸다. 경비대장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특사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추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자 수시마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대왕님 명은 어찌해야 할 것 같소?"

"명을 따르시되 소요가 있으니 조금 미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요를 수습하신 뒤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소. 급한 불을 먼저 끄는 것이 부왕의 임무일 것 같소."

결국 수시마 부왕은 빠딸리뿌뜨라로 가는 출발 날짜를 늦추었다. 소요가 일어났는데도 방치하고 떠날 수는 없었다. 수시마는 경비대장을 성민들에게 보냈지만 성민 대표는 수시마 부왕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작년에 메뚜기떼 습격으로 농사를 망쳤으므로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시마로서는 혼자 결정할 수 없었다. 빠딸리뿌뜨라 왕궁에서 허락해줘야 가능한 일이었다.〈계속〉

